[SL-8]

비용·편익 분석을 이용한 민간단체 푸드뱅크(Foodbank)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강혜승, 양일선†

연세대학교 식품영양과학연구소,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전공†

푸드뱅크는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에서 발생된 잉여식품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여 유용하게 활용토록 식품 기탁자와 수혜자를 연결하여 공동체 의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식품자원의 낭비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운영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투자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사회복지 공공정책은 정책수립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정책의 진행과정에서도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여 현재 시행중인 푸드뱅크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푸드뱅크의 장기적 발전과 효율적인 자원투자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 푸드뱅크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을 위하여 운영자, 기탁자, 및 수혜자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운영자 측면은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온 서울지역 민간단체 푸드뱅크의 사업본부와 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법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1개의 지부 중 1개의 지부를 선택하여 심층분석 하였다. 기탁자 측면은 선택된 푸드뱅크에 기탁하고 있는 18개 업체 중 설문에 응답한 11개 기탁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으며, 수혜자 측면은 이 푸드뱅크의 수혜자 290명 중 설문에 응답한 27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1년 9월과 10월에 이루어졌으며, 비용·편익분석은 2001년 9월 기준으로 실시되었다. 비용·편익분석은 운영자, 기탁자, 수혜자 및 정부 각각의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통합된 사회적 측면에서의 순편익이 계산되었다.

푸드뱅크 사업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001년 9월 현재 1년간 순편익 8,309,320,000원, 편익·비용비 46.12로 사업 추진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이 증명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1년 현재 운영기관 측면에서 273,428,000원, 기탁자 측면에서 1,044,038,000원, 수혜자 측면에서 119,654,000원, 정부의 측면에서 7,459,785,000원의 순편익이 계산되었다. 둘째, 2001년 현재 편익의 이전효과와 이중계산의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제외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 결과 8,309,320,000원의 순편익이 발생하고 편익·비용비가 46.12로 계산되었다. 셋째, 푸드뱅크 사업의 파급효과로서 발생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2차 편익으로는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른 환경개선비용 절감효과(623,000원), 의료급여 예산 감소효과(123,312,000원), 기업 이미지 광고비용 절감효과(324,691,000원), 민생안정 효과(76,577,390원)가 계상되었다. 넷째, 푸드뱅크 사업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3차 편익에는 수혜자의 영양 및 건강상태 개선으로 영양결핍 아동의 행동수행 결함의 개선효과, 운영자와 기탁자의 사회기여에 대한 만족감과 국가복지 증진효과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현 푸드뱅크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의 극복을 통한 기탁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잉여식품의 활용으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감소뿐만 아니라 수혜자들이 받는 경제적 편익을 파악함으로써 절대빈곤층과 사회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가시화 할 수 있다. 또한 푸드뱅크 사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관련법규 개정을 위한 근거자료 및 방향을 제시하여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 및 정착화 방안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